

# 북한개발소식

# 07

2020 July

통권 177호

| 이달의 주제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July

## CONTENTS

이달의 주제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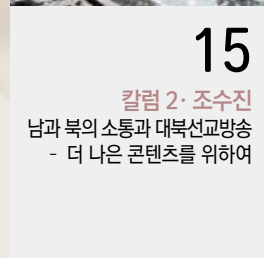
01

**권두칼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



09

**칼럼 1· 성훈경**  
2020년 방송 일지  
- 변화의 시작점에서



15

**칼럼 2· 조수진**  
남과 북의 소통과 대북선교방송  
-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하여



19

**인터뷰· 편집부**  
“통일의 그날, 목소리와  
목소리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그날까지”  
- 대북라디오선교팀 인터뷰



26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6)



31

북한 뉴스

37

**서평**  
근현대사(近現代史)로 읽는  
북한교회사

39

북한 기도 제목

### 서론: 상황진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전염병의 확산을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고,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2차 피해도 상당하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봉쇄(Lock down)를 한동안 실시하기도 했고, 봉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조 속에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전반에 큰 피해로 다가온다.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각종 모임과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극심해진 것이다.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3월 15일 이전에는 주당 30만건 수준이었으나 3

월 28일에는 686만 7천명으로 수직상승하였으며, 봉쇄 해제 및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6월 중순에 들어서도 150만명 이상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발생하는 등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동 통제 강화 및 봉쇄는 고스란히 선교 사역의 중단 또는 약화로 돌아오고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통로가 차단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열악한 보건 위생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 전파에 취약한 체 노출되고 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도 증가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모임과 집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사에 대한 후원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선교사의 82%는 코로나 유행에도 선교 현장이나 제3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선교사의 약 80%는 선교사역이 위축되고 44.7%가 한국교회나 후원자들이 보내오는 선교후원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지 선교사 중 46.8%는 식량과 물 확보에 조금 혹은 매우



〈북한 신의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화물열차에 소독액을 뿌리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sup>1</sup>

북한은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여 현재까지도 외부와의 교류를 대부분 차단하고 있다. 일부 밀수가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국경통제가 유래없이 강화된 상황에서 밀수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간의 특별 교역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은 관찰되고 있지만 평시에 비해 인적, 물적 교류 수준이 매우 낮아져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거기에 중국도 여전히 주민 이동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중 국경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선교 사역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별

히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또는 만성화 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이도 이전염병을 정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칫하면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와 이동 통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심해지고 특히 소외된 자(또는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 우리의 생명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있다.

가난해진 마음을 시원케 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북한 선교도 예외는 아니다. 선교현장의 어려움이 커짐과 동시에 선교의 필요 자체는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는 선교지의 특성상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좀 더 단순하고, 그러나 오랜 기간 그 효과가 검증된 라디오를 통한 선교사역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의 특성과 도전

라디오 방송은 전통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의 주요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라디오 방송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선교의 도구다. 북한 내에서 주파수가 고정되지 않은 미등록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라디오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통일미디어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내 미디어 환경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북한 내에서 라디오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sup>2</sup> 라디오는 2천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라디오 대북선교방송으로는

극동방송을 비롯하여 북방선교방송(TWR Korea), 광야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TVOM), 생명의 강 방송 등이 송출되고 있다.

라디오 대북 방송은 선교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여러 방송사들이 북한을 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KBS한민족 방송을 비롯하여 국민통일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등 정부 및 민간 운영 라디오 방송이 북한을 타겟으로 송출되고 있다. 이중 국민통일방송의 경우 이전 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과 대북 전문 미디어 데일리NK, OTV등이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북 라디오 방송들은 대체로 외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돕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방송에 따라 인권운동의 성격을 띄기도 한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 제작 및 송출은 일반 방송과는 또 다른 도전이다. 한국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반 방송은 상대적으로 방송에 대한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청취자의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용이하다. 반면 북한의 경우 청취 현황도 확인이 쉽지 않으며 실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기 매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대북 방송은 제작자나 송출자가 청취자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상황에 맞지 않는 방송이 일방적으로 송출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방송 프로그램이 남한의 맥락에서는 상식적이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례와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청취자에게 불친절하고 공

1 기독교신문, “코로나19 직격탄, 선교사 ‘3중고’에 시달린다”, (2020.06.0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82>> (검색일: 2020.06.19)

2 통일미디어, 「2019 북한미디어환경과 외부콘텐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서울:사)통일미디어 (2019.06.19), 12-13.





〈북한의 연속극 '행복은 어디에' 중 가정집에 주파수가 고정된 불박이 라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 라디오는 볼륨만 조절할수 있게 되어있다. (참고: NK조선)〉

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심결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반영되어 청취자들이 듣기에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그간 대북 선교방송 제작에 있어서 북한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하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간 북한으로 송출하는 라디오 선교방송 중에는 남한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 메시지가 그대로 전파를 타거나 남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그대로 북한에도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설교에서 주로 다루지는 주제와 내용도 북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설교에서 언급되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내에서의 에피소드 등이 북한에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각종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외래어와 영어 사용이 많아 청취자의 이해에 어려움이 된다. 대상으

로 삼는 청취자의 상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 주민에 맞춰진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이러한 점을 무심코 지나치기 쉽게 한다.

다행히 탈북민 출신 성도들을 통해 이러한 점들이 일부 보완될 수 있다. 근래에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들이 패널리스트나 진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빈도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청취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대북 방송의 특성상 탈북민의 참여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민간 대북 방송사들과 비교해 대북선교방송에서 탈북민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다. 선교 방송의 특성상 방송 내용이 단순히 북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방송, 북한, 신학 등 여러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아무래도 방송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방송 작가나 PD, 또는 진행이나 작가로 참여하는 사역자, 전문가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탈북자는 단순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쉽다. 탈북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이 단순해지거나 이미 주어진 텍스트에 의존하게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신앙과 전문성을 겸비한 탈북민 출신 방송 인력을 양성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인력들과 기독 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제작의 어려움 외에도 선교방송으로서의 열매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큰 장애가 된다. 보통의 경우 불신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교육과 훈련,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그렇지만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대북 기독교 방송의 경우도 선교방송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불신자들이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방송을 통해 신앙을 받아드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을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방송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대북 라디오 사역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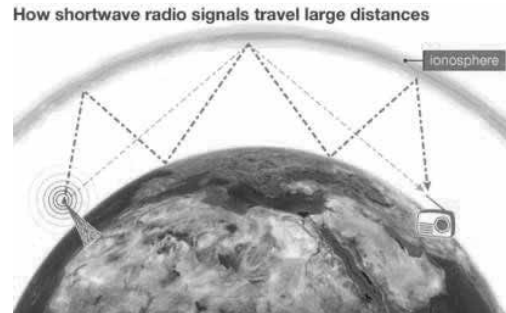
이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창의적인 접근을 끊임없이 요구 받는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북한의 현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맞는 문화적 코드를 분석하며, 공감할 수 있고 시의 적절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단순 남한의 설교 방송이나 기존 방송을 일부 수정한 수준의 방송이 아닌 북한 주민과 성도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송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형식도 예배 중계, 말씀 강해 등 필수적인 것들 외에도 불신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외부 사조 유입 관련하여 실시한 연구를 보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 소식이나 드라마 또는 각종 문화 콘텐츠를 선호하였으며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보 또한 문화 정보(39.3%)의 비율이 정치(11.9%)나 군사(1.2%)에 비해 높았다.<sup>3</sup> 이러한 통계는 주민들이 방송을 보고 듣는 이유가 주로 흥미와 재미, 문화적 욕구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과적인 선교 방송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성경적 문화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흐름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방송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듣는 이들의 상황에 맞춰 방송 프로그램도 신앙 생활 전반을 아우르도록 다양하게 개발, 송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취자가 방송의 흐름을 따라 계속 청취할 때 자연스럽게 신앙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송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방송이 교회의 역할을 어느정도 감당하는 것이다. 또한 띄엄띄엄 순서 없이 프로그램을 듣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극동방송 등 몇몇 중파(AM)방송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파(SW, Shortwave) 주파수를 이용한다. 단파 주파수는 대륙간의

3 박대광, 김진무 (2012).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28(1), 174-176.



〈단파는 3~30MHz 대역의 주파수를 의미하며 지상에서 대략 150~300km 상공에 형성되어 있는 전리층에서 반사된다. 지표와 전리층 사이 반사를 반복하면서 수천 Km 떨어져 있는 원거리까지 방송 송출이 가능하다. (사진: BBC)〉

통신에 이용될 만큼 먼 거리까지 전파를 송출하는데 유리하지만, 음질의 손실이 심하고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을 꼬박 꼬박 듣는 성도라도 음질 문제 등으로 듣기 어려운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각종 단속과 검열을 생각하면 충성스러운 청취자라도 방송의 상당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몇 번 방송을 놓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전도 방송에서부터 말씀의 기초와 신앙 성장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오랜 기간 연속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신앙 생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 라디오와 북한선교의 특성에 따른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방송 선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변화와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

직접 가서 전할 수 없는 북한 선교를 위한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의 필요와 더 나은 방송을 위한 고민 등은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전체적인 고민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에 큰 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와 양육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기독교 미디어에 덧붙여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나 유튜브를 활용한 신앙 콘텐츠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면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생활을 도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기존의 대북 선교 방송의 그것과 유사하다(비록 북한의 상황은 현 코로나19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의 교훈은 미디어 목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 없이 계속 감염자가 나오는 등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칭되는 예방 활동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생활을 어떻게 격려하고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양한 세미나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와 목회상을 조망하는 노력

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천 라이프웨어 리서치 대표 톰 라이너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할 5가지 목회방향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매체나 방송 미디어 등을 터부시하는 대신 복음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건물이 목적지가 아닌 수단으로 보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그간 교회는 교회 건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건물은 단지 모이는 곳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는 공동체가 교회로 오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sup>4</sup>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4차산업혁명과 이어지는 시대적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선교 환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모이지 못하고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지만 숨겨왔던 오래된 성경과 찬송, 또는 그마저도 없다면 이전에 배웠고 들었던 기억에 의지하여 신앙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라디오는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북녘에 복음을 나누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기독교계 내에서도 대북 선교 활동에 대해서 소극적 또는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 제대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모임도 가질 수 없으며 체계적인 양육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미있게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얼마나 듣는지 그 효과성도 확인하기 어려

운 라디오를 통한 선교라고 하면 더욱 회의적인 시선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막상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성도 각자가 신앙생활을 책임지게 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격려하며 신앙 훈련을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할 수 있었다. 하물며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비대면 선교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대북라디오 선교 방송은 사실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송을 만들어왔다. 주파수 사용료, 전파 송출료, 녹음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 방송국 운영은 상당한 비용이 계속해서 소모되는 일이다. 이런 재정적 부담 속에서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과 필요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제는 대북 라디오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강조되는 미디어 사역과 라디오 선교 간의 긍정적 시너지도 기대해본다.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양질의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들이 생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라디오 방송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 미디어 목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모습 (뉴스파워)〉

4 크리스찬 투데이, “코로나19 이후 변화할 목회적 시각 5가지”, (2020.05.04)〈<http://christiantoday.us/26513>〉(접속일: 2020.06.24)

응용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기존 대북 라디오 사역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교회의 미디어 목회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기독교계 내에서 미디어 복음 사역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더 많은 인재가 양성된다면 대북 선교 방송을 위한 전문 사역자도 세워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결론

여러 제한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대북 라디오 선교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귀한 사역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의 영역이다. 비록 얼굴과 얼

굴을 마주볼 수는 없지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은 남과 북의 교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교회를 준비하는 일의 초석으로 대북 라디오 선교를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목회와 선교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길 바라며 그 속에서 북한 선교와 대북 라디오 선교 사역에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2020년 방송 일지 - 변화의 시작점에서

성훈경 (TWR Korea 북방선교방송 대표)

코로나19가 사회 전역에 혁명 과도 같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선교 현장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되는 계기도 만들고 있다. 남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만나서 교제하는 즐거움의 가치를 새삼 깨닫는 듯하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마음을 정보 기술이 도와주고 있다.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 방송이 그렇다.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라디오 방송은

갈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 아직은 진행중인 상황이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듯하다. 그래서 이번 글은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한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러나 커다란 변화가 분명한 지금의 이 상황을 경험하는 현실적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한다.

TWR 북방선교방송은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TWR 북방선교방송이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북한에 단파 방송으로 송출하는 광 송출소(오른쪽)와 비상발전소 건물(왼쪽) (TWR 북방선교방송)〉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초교파 미디어 선교단체이다. 매일 밤 10시 15분 부터 2시간씩 북한으로 방송을 보낸다. 방송을 듣기 위한 라디오도 보낸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원격양육 사역을 시작했다. 원격양육이란, 선교사가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탈북민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양적 온라인 만남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신



실한 신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그렇기에 북한도 남한도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다.

## 2019년 12월

드디어 원격양육팀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그 동안의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 흠어진 탈북자들,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일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데 마땅히 도울 길을 찾지 못했었다. 두어번 시도를 해 보았지만 마땅한 일꾼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미뤄왔었다. 올 해 초에 상황이 바뀌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한 순간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다. 그렇게 애를 쓰며 찾아도 찾지 못했던 일꾼을 갑자기 만나게 하신다. 더불어 후원자도 붙여주신다. 먼저 사역의 필요를 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마도 일을 맡아 진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인 것 같다.

기대에 가득한 마음으로 마지막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여행을 다녀왔다. 후원을 약속한 기관의 관계자도 동행했다. 매일 10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며 근 일주일을 보냈다. 기대보다 큰 감동을 주셨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행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를 찾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기뻐다.

현지를 떠나 귀국 길에 현지 관계자로부터 연

락이 왔다. 자동차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과속 교통 딱지가 여러장 나와서 벌금을 내야 한단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넓은 땅을 짧은 기간에 다니려다 보니 규정 속도를 지키지 못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한 건의 사고 없이 여행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할 뿐이다.

## 1월

모두가 처음 하는 일이라 갑론을박이 있었다. 4명의 사역자가 확정되었다. 그 중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 두 명씩 짝을 이뤄 두 팀으로 나누었다. 얼마나 자주 개인 연락을 취할 것인지, 주일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양육을 위한 교재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어느 시간대에 원격 만남을 진행할 것인지, 현장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지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다. 다들 기대에 차 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 걱정도 한 가득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 년동안 탈북자들을 도우며 만나왔지만 이렇게 원격 만남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양육 사역은 처음이라 어떤 변수가 어려움을 만들어 낼 지 긴장하는 눈치였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배움의 기간으로 잡았다. 우리도 배우고 현장의 탈북자도 배울 것이 많다. 주요 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앱의 사용 법도 배우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신뢰를 쌓는 법도 배우고, 지금까지와는 수준의 세심함이 이제 필요하다.

첫 주, 둘째 주 사역을 진행하고 긴급 모임을 다시 가졌다. 예상했던 것 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 성도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녹음하는 성우들 (TWR 북방선교 방송)〉

사역자들부터 당황한 눈치였다. 처음 삼 개월 동안 배움의 기간임을 다시 한번 사역자들에게 상기시켰다. 기대와 다른 현실에 적잖이 놀란 마음을 다독이며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역자가 먼저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사용법을 정확히 익힐 것, 모든 탈북자와 주 중에 반드시 연락하여 앱 설치와 사용법 안내를 마무리할 것, 기타 다른 관심사와 처리해야 할 것들은 일단 다음 달로 미루어 둘 것, 예배시 각 팀의 사역자는 역할을 둘로 나누어 진행할 것, 일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할 것. 너무 하다 싶을 만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다시 점검을 했다.

4주차를 마치고 월말 결산을 했다. 중간 결산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여전히 정비해야 할 부분이 여럿 있다고 모든 사역자가 동의했지만, 의욕이 넘쳤다. 그리고 한가지 요구 사항이 들어왔다. 아무래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통신으로 관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정

을 잡아 각자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방문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 2월

갑자기 우리가 사용하는 원격양육 도구를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유의 사태로 갑론을박 하면서도 방법을 찾아 나선다. 코로나 19가 폭풍을 몰고 왔다. 이동이 제한되었다. 국내와 국외가 모

두 막혔다. 예정했던 현장 방문을 5월 즈음으로 연기했다. 형제들이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외로이 지내는 일상에 기다리던 만남이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에 실망한 얼굴과 목소리가 마음 한 구석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역자들과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 형제들의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해줄수 있는 것이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라 더 힘들단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동이 금지되면서 형제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더 힘들어졌다. 형제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인지 뇌출혈 사고가 높은 비중으로 발생한다. 왜 안그렇겠나? 언제 행정 절차가 끝나서 한국으로 올지 아무도 확답해 줄 수 없으니 그저 잘 될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연한 기다림의 연속이나...

3월과 4월 예정했던 사역 일정이 모두 취소되

었다. 한국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와 성경공부, 기도모임 등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주일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이 우선 취소되었다. 하루 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팀에서 제안을 해왔다. 암 투병 경험이 있는 사역자가 중국 현지에서 사역하며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한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는 특별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단다. 우선 6개의 원고를 보내왔다. 한국어로 만들어 방송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왔다. 제작부 책임자에게 원고를 넘기고 나도 살펴보았다. 소망과 평안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월에 마침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아쉽지만 적어도 한가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 3월

월요일 출근길이 막혔다. 뉴스 보도에 등장한 신천지 공부방 중 한 곳이 우리가 세들어 있는 건물 2층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긴급히 건물 전체를 방역조치했고, 서울시에서 2층 입구를 봉쇄했다. 건물이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간 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간사가 재택근무를 했다. 지난해부터 준비한 것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긴급히 예정되어 있던 녹음 진행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우선 일주일만 시간을 미루기로 했다.

일주일 만에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 많은 회사



가 재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출근을 해야한다. 녹음과 편집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무실에서 긴급히 집에 임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자신이 녹음을 할 수 있는 진행자를 위한 긴급조치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이다. 음질의 저하는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TV 프로그램들이 재방송이나 특별 편집본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당황한 기색과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 버틸만하다.

5월 사역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다. 몇 주를 내다보며 일정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방송인데, 지금은 2주 앞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과 연락하며 일정을 계획해 보지만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정되었던 일정이 취소되면서 오히려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지난 달에 미뤄두었던 특집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길게 갈 것 같다. 지금 만들

기 시작해서 방송을 보내도 북한에는 유용한 내용이 될 것이다. 매일 매일 간사들과 녹음과 방송 일정을 확인한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다. 마음을 모아서 예정된 일정을 따라 방송을 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 고맙다.

### 4월

염려하던 상황이 찾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진행자 몇 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자가격리 되었단다. 녹음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여유 프로그램도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 방송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방송을 보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 기획과 원고 작성까지 감안하면 방송시간의 20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간에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미리 미리 만들어 둔 것들이 있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긴급 상황을 잘 대처해 왔다. 이제는 재방송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서 재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청중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프로그램은 재방송을 편성해야 한다.

낮선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기독교 신문사 기자인데 인터뷰를 하고 싶단다. 여러 행사가 취소되면서 기삿거리가 떨어져서 새로운 기삿거리를 찾다가 북방선교방송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대형교회가 온라인

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면서 남한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혼자 인터넷 영상 서비스로 예배에 참석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알리면 좋겠단다. 적극 환영이다.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만났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니 준비를 꽤 잘해왔다. 그래서 그랬는지 짧게 계획했던 인터뷰를 3시간이 넘게 했다. 단편으로 내보려던 기사도 내용이 좋다면 3편으로 나누어 연재하자고 했다. 지난 두달 사역 소개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 5월

라디오를 한 대도 보내지 못했다. 북한은 2월 초에 국경을 봉쇄했다. 해외에서 들어간 주민도 40일을 완전 격리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가게 했단다. 의료시설과 시스템이 부족하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을 원격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시작한 지 오개월에 접어들었다. 사역자들도 이제는 자리가 잡혔다. 주중에 한 번씩 형제들과 일대일로 연결해서 안부도 묻고 신앙도 권유한다. 주일에는 여러곳에 흩어진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를 드린다. 좋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탈북자가 쉼터에 들어왔는데 워낙 경계가 심했다. 3개월여를 지켜만 보고 연락을 원치 않았다. 매주 쉬지 않고 꾸준히 연결하여 예배드리는 모습과 예배때 전하는 말씀에 서서히 마음





〈TWR 광 송출소의 안테나와 안테나를 지지하는 타워 사이로 무지개가 떴다. (TWR 북방선교방송)〉

이 열렸단다. 자진해서 같은 쉼터에 있는 탈북자에게 이야기해서 연락처를 알려왔다.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더 알고 싶다고 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 만남을 통한 사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북한의 청중 소식을 듣지 못한지가 벌써 육개월이 넘었다. 매일 방송을 보내지만 청중이 소식을 전해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과연 우리 방송을 지금도 듣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요즘 방송은 쌍방향 소통을 한다. 시청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기도 한다.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은 여전히 일방적이다. 큰 믿음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은 매일 청중을 향해 방송을 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청중과 소통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고립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으로 오늘도 방송을 보낸다.

## 6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 주일 예배 설교 요청을 받았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코로

나19가 확산하면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한다.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장소가 학교 체육관이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단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초대에 응했다. 텅 빈 체육관 예배 진행을 위해 함께 하는 10명이 채 안되는 인원이 띄엄 띄엄 앉아 있었다. 일 당 백이라 여기며 말씀을 전했다.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이 라디오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북한의 청중과 같으리라.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그만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창립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인해주신 내용을 고백할 때면 언제나 눈물이 난다. 몇 번을 다짐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들이 저곳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줄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라디오 방송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곧 상반기 사역 결산을 한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북한 청중의 상황이 점 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다른 북한 선교 사역이 곧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응급 상황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사들과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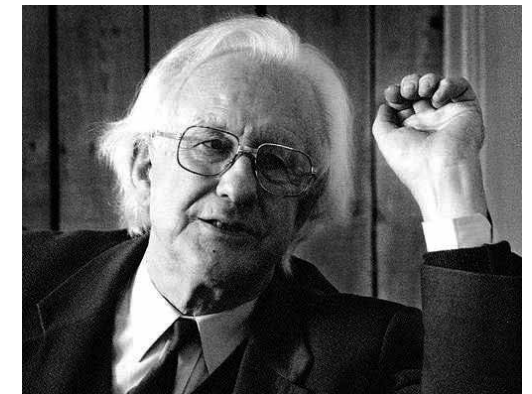
# 남과 북의 소통과 대북선교방송 -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하여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언론학 박사)

엮힌 데 뿔친 격이다. 코로나19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선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 같아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남과 북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를.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언론학자들 역시 ‘남북 언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감수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평화의 감수성은 도대체 어떻게 높여나갈 수 있을지 여전히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언론교류, 협력은 가당치도 않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갈등 지향적인 ‘전쟁 저널리즘’의 관행에서 벗어나 ‘평화 저널리즘’의 관점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을 비롯한 평화학자들은 평화를 3단계로 구분해 논의한다.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조성(peace making), 평화 구축(peace building)의 3단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요한 갈통 (1930-)〉

계다. 지속 가능한 평화체계를 만드는 평화 구축의 단계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되는데,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은 남,북간의 반목과 적대감의 원인, 배경을 찾아내 그것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독일의 사례가 그렇다. 평화 저널리즘의 실천 사례로 회자되는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언론들이 동독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소극적 평화 저널리즘의 실천으로 평가된다. 냉전 질서하에서도 신뢰를 받았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시금 검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가지로 나눠 고민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전쟁 저널리즘의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언론에 있어서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해소를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 저널리즘’의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 하나는 독일과는 달리 교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그 소통의 방법으로 ‘대북라디오방송’ ‘대북 선교방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 대북라디오방송 지형의 변화

북한은 언론이 통제되고 외부 정보가 차단된 사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유일한 매체가 바로 대북라디오 방송이다. ‘심리전’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대북방송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상파 방송으로는 KBS한민족방송과 종교방송인 극동방송이 있다. 국내의 정세변화와 방송환경 변화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연성화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탈북자 중심의 민간대북방송이 2005년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 여기에 미



〈서울 상수동에 위치한 극동방송 사옥〉

국이 주체인 미국의 소리방송(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의 BBC방송이 대북방송에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대북방송의 주체(Player)가 다변화되었다. 체제 비판이라는 강한 심리전 성격으로 시작된 대북방송이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제는 점검하고 살펴볼 때다.

대북방송의 주체가 다변화된 이후 대북방송의 성격은 공통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전문 채널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KBS한민족방송의 경우, 심리전 방송에서 사회교육 방송을 거쳐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로 변화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전문채널로서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방선교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극동방송의 경우 90년대 말부터 국내방송과 지사 확장에 힘쓰면서 대북방송으로서의 위치는 침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대북방송의 주체가 다변화되는 시기, 다시 대북방송을 강화하며 역시 통일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대북방송은 출범 당시 프로파간다 방송의 성격이 강했

으나, 10여 년이 지나 일부 방송이 통합되면서 역시 통일의 역할을 주 과제로 삼고 있다. 즉 다양한 주체의 대북방송들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 전파를 통해 정보를 유입하는 역할로서 통일 이전단계에서, 통일을 과정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 ‘일상성’이 강조된 콘텐츠

그렇다면 그 그릇에 담긴 콘텐츠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찾아내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평화 저널리즘적 차원의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은 냉전 시대의 갈등에 머물러 체제 경쟁적 기사를 양산해 신뢰 형성의 기회를 잃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최근 경제 관련 프로그램, 날씨 정보 등이 늘고 있는 이유다. 탈북민들을 중심으



〈북한 주민의 일상에 밀착된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강변에서 빨래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

로 형성된 민간대북방송의 경우도 처음 시작한 체제 비판, 김일성 일가에 대한 폭로 등 심리전의 성격이 강한 어조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도 반감을 사게 되는 내용보다는 우회적인 내용, 그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더 선호되고 신뢰를 얻는다는 피드백을 접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일상성’이 반영된 콘텐츠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일상성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일상을 통해 북한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북한학 연구에서도 시작됐다. 오랜 시간 북한학 연구는 구조화된 자료, 텍스트 위주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 영화 등의 간접 경험을 통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주로 마페줄리(Maffesoli)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마페줄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개인이 거대한 담론,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자신과 관계된 일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의 증언, 영화 등 간접 경험을 통한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의 일상을 드러내고 감춰진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일상사적 연구는 북한의 일상을 통해 주민들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1990년대 이후 변화된 북한 주민들의 일상, 장마당에서의 시장 거래, 이동 등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영역이



# “통일의 그날, 목소리와 목소리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그날까지” - 대북라디오선교팀 인터뷰

## 편집부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관과 사역자들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중 본 선교회 후원하에 대북선교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 ‘생명의 강’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가 방송사역자 두분 (S, Y)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들의 이해와 기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1. 방송 소개

**편집부:** 안녕하세요

**사역자 S, Y:** 안녕하세요

**편집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독자분들을 위해 생명의 강 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S:** 네, 저희 생명의 강 방송은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복음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중에 매일 1시간씩 밤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편집부:** 어떤 프로그램들이 송출되고 있나요?

**Y:** 성경 말씀을 나누는 프로그램부터 찬양,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가정과 다음세대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로 이미 신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생각되네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S:** 네,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보다는 믿음이 있거나, 전에 여러 경로로 복음을 들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북한의 믿지 않는 일반 주민이라도 라디오에서 조선말이 나오니까 반가워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들을만한 정도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쉽게 만

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연구의 관점에서 대북 라디오 콘텐츠를 살펴본다. 민간대북방송이 출현한 이후 대북라디오방송의 주체가 다양해진 시기, 편성의 변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탈북민들의 방송 참여다.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일상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가 최근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탈북민들의 말이다. 그들의 말에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있어 몇 가지 소개한다.

방송을 하다보면... 탈북해서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시거든요..그래서 여기 생활을 가감없이 말해요. 남한에 와서 사기당한 사람 이야기까지도 그대로하고, 거기 살 때 이야기도하고 지금 여기서 생활하면서 거기는 이 때쯤 어떻게...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편하게 듣는 거 같아요. 막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개구리 전도하려면 개구리 돼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죠. 탈북민들 목소리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 나도 거기 있을 때 그런 거 찾아 들었고....그게 중요해요..머 판 얘기 하는 것보다 사는 얘기를 ..

여기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말씀 찬양 위주로만 초기에 갔었는데, 여기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였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 생각하기보다... 그런데 요즘은 북한, 실제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가미가 된다. 그게 저쪽에

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여기 생활, 그리고 그 쪽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통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모 단체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가 무엇이고, 그것을 파악한 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그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콘텐츠를 그동안 얼마나 고민해왔는가 묻고 싶다. 이제는 선교적 노력에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포함시켜야 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북한 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구시대에 머물러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선교 전략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을 향한 선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제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미 우리에게 ‘대북선교방송’이라는 유용한 도구가 있다. 그러나 6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대북선교방송에서 늘 지적되는 문제는 ‘전문성’이다. 이제는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지도 제안해 본다. 선교대상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도록 말이다.



들려고 애쓰기 때문에 계속 청취하게 된다면 신앙을 받아드리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사역 참여 동기

**편집부:** 네 아무쪼록 더 많은 분들이 생명의 강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제작하시는 생명의 강 사역자분들은 어떻게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S:** 네, 저는 어릴적부터 라디오 방송작가가 꿈이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잘 모르는 영역이었고 사실 관련된 사역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생명의 강 방송에서 작가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제안 받았을 때 이런 방송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

고 특히 북한에 성도가 있다는 것, 라디오를 통해 지하교회 도움을 준다는 것,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감동과 매력을 느꼈습니다.

**Y:** 저도 비슷하게 작가와 진행자로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전부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주 다른 세상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성도들

위해 여러가지 돕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3. 방송을 만드는 태도와 마음가짐

**편집부:** 네,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직접 제작해보시니 어떠신가요?

**S:** 네, 감사하게도 처음 받은 감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이 아닌 북한이라는 심각한 박해지역에서 어렵게 방송을 듣는 성도들을 위한다는 명확한 타겟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라디오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청취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특히 북한은 청취자 확인이 어려운 환경이지요. 그렇지만 대상과 목적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덕분에 감

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Y:** 전에 출연자나 작가로 참여할 때와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느낌입니다. 출연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북한으로 송출된다는 것이 실감이 안나고 누가 들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프로그램 제작에 더 밀접하게 참여하면서 더 크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편집부:** 마지막에 잘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인상깊습니다. 잘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S:** 네, 잘 만들고 싶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몰래, 숨죽여서, 위험을 무릅써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할 때 정말 유익한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어두운 밤 긴장하며 방송을 들으실 때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제작합니다.



## 4. 방송 제작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편집부:** 네,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듣는 분들께 더 큰 감동으로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신경쓰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S:** 네, 무엇보다 그분들의 상황, 현실을 담을 수 있는 방송이 되어 한다는 점에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 전도는 중요한 신앙의 부분인 만큼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북한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중하게, 또 현실에 맞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도의 비중보다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또 이웃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북한의 사회적 맥락에서 제시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언어적인 부분도 신경씁니다. 남한에서는 외래어가 쉽게 사용되고 있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지 않고 가능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반영하기 위해 신경쓰고 공부합니다.

**Y:** 저는 앞서 언급해주는 내용 외에도 방송의 음질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단파 방송은 주파수 특성상 장거리 송출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음질이 소위 '깍겨나간다'고 표현하는, 음질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원본의 음질이 좋아야 송출과정에서의 음질 저하에도 듣는 분이 비교적 깨끗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투자와 노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전파 간섭이나 방해전파를 들 수 있습니다. 단파 방송은 국제적인 규약에 따라 반기로 주파수를 변경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 3국의 엉뚱한 방송이 갑자기 인접 주파수로 방송을 송출하여 전파 간섭으로 방송 청취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또 북한에서 송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해 전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주파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S:**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해야 합니다. 작가, 진행자, 패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방송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인 만큼 진정성 있게, 또 열정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방송을 만들도록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복녁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사역에 기쁘게 참여하시는 분이 모두 마음을 한데 모아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연결된 것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5. 코로나19와 방송제작

**편집부:** 네, 여러가지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S:** 무엇보다 감염 이슈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

이었는데 현재까지는 다행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자들도 감염자가 없었고 방역 등의 이슈로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복녁의 성도들은 더 어려울 텐데 조금이나마 방송을 통해 힘을 북돋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 힘써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고 북한도 국경을 막고 있는 만큼 라디오 사역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성도들에게 라디오 선교 방송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Y:** 코로나19가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방역에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녹음실 방역에서부터 출연자들 건강관리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마스크 철저히 쓰고 방송 외의 생활 부분에서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염되면 방송이 다 중단되고 출연자들 삶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로 모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북한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상황이 더 공감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 6. 사람의 중요성

**편집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좋은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 기술 외에도 성경적 지식이나 복



한의 상황에 대한 이해 등 일종의 선교적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S:** 네, 신학이나 성경 지식적인 부분은 저희 방송 스태프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방송 쪽에 관심이 있었구요. 이렇게 각자의 강점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참여하는 탈북민의 도움이 큼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분들이 자기 이야기 잘 안합니다. 대답도 단답형으로 하고... 하지만 관계가 형성되면 그곳에서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배움도 늘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 어휘도 많이 늘게 되고요. 요즘에는 저도 탈북민분들이 쓰는 어휘가 익숙해져서 ‘다이어트’라는 말 대신 ‘살까기’라고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웃음).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북조선의 어휘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문화를 익혀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편집부:** 참여하시는 탈북민의 역할이 중요하

겠네요. 단순히 방송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S:** 네 맞습니다. 관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성이 부족한 가운데서는 소통에 오해도 발생하기 쉽고 프로그램 제작에서도 대본에만 의지해서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나오는 식의 소극적 참여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잘 형성되면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실제 방송 녹음을 해 보면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와 관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시간을 들여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하면 할수록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탈북민들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탈북민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가져가면서 통일에 대한 마음도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 7.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

**편집부:**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감동이 듭니다. 이렇게 노력하며 방송을 만들고 계신데 만드신 방송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Y:** 네, 저는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우

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제작하는 저도 위로를 받고 있고 참여하시는 탈북민 출연자와 방송을 듣는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방송 특성상 송출 몇 주 전에 미리 녹음을 하는데 방송이 되는 그 때에 알맞는 기도의 내용이 담기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또한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이 방송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 저는 심방 예배 방송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같이 목회자를 만나서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희가 라디오로 심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컨셉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정말 예배에 갈급한 북녘의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는데 가장 애착이 갑니다. 그것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8. 바램과 기도

**편집부:**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니 북녘의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앞으로의 비전도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S:**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북녘의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목소리로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성도님들과 함께 웃으면서, 또 출연자들의 목소리

를 기억해주시고 반가움을 표해주시는 그런 날이 올 때 까지 꾸준히 양질의 방송을 잘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각한 박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하시도록, 그래서 통일의 그날 목소리와 목소리가 얼굴과 얼굴의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Y:** 저는 통일 이후 방송에 대해서 고민하곤 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중요한 선교의 도구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그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야 말로 힘써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교해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날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 이후는 또 주님께서 열어주실 길이 있음을 믿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 9. 기도제목

**편집부:** 네 귀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해주실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 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출연자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인 것 같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사역 중단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송이 제작되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Y:** 저는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만들수록 사람이 중요

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각 방송 프로그램에 맞는 출연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출연자들, 작가들, 인재들이 잘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는 북녘의 주민들과 성도들의 안전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편집부:** 네 귀한 기도제목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S, Y:** 감사합니다.





# 신앙의 자유를 찾아(16)

마리아

북한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조직에 등록된다. 소년단, 사로청, 녀맹, 직맹, 노동당 등 인생의 절기에 따라 각종 조직에 가입되어 관리를 받는다. 나는 여자들이 일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맹 조직에 속해있었지만 출소한 이후로는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가 않았고 또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다. 탈북하여 중국을 다녀오고 또 교도소까지 다녀온, 어쩌면 인생의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서 다른 북한 주민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가기란 쉽지 않았다. 나에게 중국은 어땠느냐고 순수하게 물어보는 듯하여도

나의 대답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가 무섭고 싫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갓 복송되었을 당시 보위부 조사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한 것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다. 나라 형편이 어려울 때 중국 생활이 좋다고 선전하면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라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고 중국 이야기를 누설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추대 26주년을 맞아 개성문광장에서 열린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여맹) 일꾼과 구성원들의 경축무도회 모습〉



〈북한주민 실상 재연극 '인민반회의'의 한 장면 (NK지식인연대)〉

고를 받았다. 이러한 서약 때문이라도 더더욱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동네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되었다.

특히 2년동안 교화소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며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더욱이 출소 이후 갑작스럽게 새로워진 모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버거웠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인 관계를 쌓아갈 여유가 없었다. 물론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날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보다 훨씬 불안감이 덜했다.

북한은 워낙 감시체제가 철저한 사회인지라 하루가 머다하고 여맹위원장이나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와 왜 조직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담당형사에게 가서 매일 나의 행방을 보고하고 '왜 마리아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냐'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가끔씩 친구들 만나러 옆 동네에 가면 그걸 또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조직 생활은 안하면서 엄한 곳만 다녀온다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느냐'며 남의 인생에 왠 참견질을 하였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돌봄 및 교양의 대상이자 그들의 시야와 정상적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아주 부패타락한 사람이며 감시 대상일 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널리 정교하게 구축되어있는 모든 조직은 본래 나라를 위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일터이지만 이제는 나라에 바치는 각종 세금과 부담들이 대단하여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할 지경이었다. 겨울에는 추운 날 전 방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군인들을 위한 후원으로서 토끼털 가죽을 바치라고 할 때도 있었고, 지역 사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세대별로 돈을 얼마큼씩 내라고 하는 등 지침이 내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민반을 통한 세대부담뿐만 아니라 각자

속해있는 여맹, 직맹, 학교 등에서도 각기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나라에 바쳐야하는 것이 많았다. 원래대로라면 나라에서 배급을 주어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하는 것이 정상일텐데 어찌된 것인지 백성들에게 배급은 끊겨서 살 길은 막막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에 동원되는 것도 많아서 참으로 살기가 여간 빠듯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사회에 대한 불만은 표출하는 것은 즉시 문제가 되었다. 하루는 인민반장이 돈을 건으러 왔을 때 내가 ‘도대체 이 나라는 나에게 해준게 뭐가 있느냐, 왜 이렇게 돈 낼 게 많냐’고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다. 여맹위원장에게도 ‘대체 이 나라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백성을 이런 식으로 못살게 구느냐’라며 따졌더니 돌아오는 말인즉슨, ‘우리가 굶어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세뇌가 잘 됐는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옆집 시댁 형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돈 건으러 왔던 여맹위원장에게 한 마디 했다는 소리를 하자 형님이 펄쩍 뛰면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자꾸 그러다가 그런 말이 쌓이고 쌓여서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며 조심하라고 했다. 어렵פות이 알고는 있었으나 체포될 수도 있다는 말을 새삼 내두 귀로 직접 들으니 마음의 위협과 압박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서글프고 원망감이 더해졌다.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을 다 보듬어주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 갑자기 출소하여 몇 년만에 합류된 가족 안에서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자니 집에 대한 안정감도 없

었거니와 잦은 갈등에 의해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일수였다. 생계 유지도 어려울뿐더러 마음이 강박해져있는 상황에서 가족간에 따듯하게 말 한마디 오가는 것이 참 어려운 날도 있었다. 시어머니와 다툼 때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저렇게 살려놔가지고 데려왔냐. 면회도 가지 말 것이지.”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였다.

중국에서의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내 인생과 행복의 전부였던 우리 애들과도 점점 세차게 다가오는 현실의 물살에 밀려 본의 아니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없는 오랜 세월동안 아빠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별안간 낯선 엄마가 나타나 아빠와 자꾸 다투고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애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내가 집에 온 이후로는 그동안 만남의 광장과 같았던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원래는 마실방처럼 애아빠 친구들이 많이 놀러와서 담배도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출소하고 나서 한창 예민하고 민감했다. 중국에서 생존을 위해 남한 말씨를 열심히 배워왔기에 나의 발음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바깥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아예 우리집은 사람 접촉을 없애자’라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정말로 친한 사람 외에는 우리 집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우리 집에 유일하게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중국에 가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었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렸다.

하루는 집안에 초대된 사람들과 중국 백화점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짐이 많아지면 보관함에 짐을 잠시 놓아두는 체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여기 북조선에서는 백화점 물품보관소는커녕 흙길에서 타고 다닐 자전거를 갖기에도 어려웠다. 다시 한번 마음이 공허해졌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을 우리 딸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되었다. 언제 한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얼굴빛을 확 바꾸면서 ‘우리 나라도 생산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며 화를 내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 같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엄마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엄마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저 멀리 있는 엄마에게 저 끝에서부터 “엄마!”하고 소리치며 반갑게 달려와 안기는 것이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좁은 골목에서 마주쳐 지나가도 나에게 아는 척도 안 했다.

어느 날은 집에 앉아서 남편 양말을 꿰매고 있는데 시형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우리 딸을 찾았다. 아주 성질이 불같은 분이신데 그날따라 노발대발하며 우리 딸에게 ‘누구 집에 들어가서 과일을 훔쳤냐’고 화를 내었다. 알고보니 친구와 함께 담을 넘어 남의 집 과일을 따다가 들킨 것이었다. 나는 우리집이 가난하여 내 딸이 남의 집 과일을 훔쳤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엄마가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인데 딸마저 다른 사람들 눈에 낙인이 찍히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다. 시형 들으라고 부러 큰 소리로 딸에게 “엄마가 교도소 갔다 온 전과자인데 니라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니가 이렇게 훔쳤다고 하면 사람

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혼을 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본인이 먹고싶다고 지나가면서 말한 소리를 손녀딸이 들었나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하셨다. 알고보니 며칠 전부터 몸져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어렵פות이 지나가는 말로 ‘시원한 과일이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나중에 혼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쥐구멍에도 별들 날 온다고, 아이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겼었는데 바로 학교 운동회날이었다. 보통 평소에는 흔히 잘 못 먹고 살아도 운동회날만큼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다주는 것이 우리네 작은 문화였다. 나도 그날만큼은 중국에서 요리를 배워온 실력을 발휘하여 정성스럽게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더니 자기는 이럴 때만 큼은 남한테 빚을 저서라도 잘해준다고 반찬을 더 하자고 했다. 그동안 엄마없이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오히려 더 신경써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모범 아빠였던 것이다. 남편 말을 듣고 동네 상점에서 재료를 조금 더 사서 요리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둘째날 외금강호텔에서 열린 개별중식 당시 북측 도시락(연합뉴스)〉



체육대회 당일에는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 갔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울타리에 있었고 건물만 달랐다. 점심시간에 아이들 도시락을 다 둘러보았지만 우리 아이들 것만큼 그럴듯한 도시락은 없어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김밥, 인조고기, 떡, 생선, 해물, 산나물, 각종 나물 등... 아이들도 은근히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눈치였다.

오후에는 장기자랑을 했다. 우리 딸이 순서가 되어 앞으로 나가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정말 껌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참 잘했다. 소년단 주임이 '누구 딸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느냐' 했더니 딸이 나를 가리켰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기 뒤쪽에 특이한 안경을 낀 학부모'를 불렀다. 당시에 중국에서 사온 안경을 쓰고 있던 나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은 했지만는 티내지 않고 딸 옆에 서서 사람들의 호응에 맞추어 노래를 몇 곡 더 불렀다. 물론 김일성 3대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합류하여 우리 셋이서 다같이 사람들 앞에서 즐겁게 노래 솜씨를 뽐냈다. 참으로 각박한 세월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영원히 간직하고픈 아름다운 기억이다. 그 이후로는 아이들



〈6.6절을 맞아 비파고급중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가한 모란봉구역의 소년단원들〉

과도 차츰 관계가 좋아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출소 이후의 삶은 심적으로도 고군분투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으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으며 순간순간마다 여러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또 풀어낼 수 있었던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한국에서 가끔씩 간증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북한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울리는 질문이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곳을 다 욕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기도로서 우리가 북한 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품어야 할 곳이라고 고백하며 그 곳에서의 나의 삶과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

## + 숨가뺐던 6월... 북한의 의도와 남북관계 추이 주목

6월 한달은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출렁거렸다. 발단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북한의 반발이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4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 당국이 이를 방지할 경우 '최악의 국면'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뒤이어 6월 9일 모든 남북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고,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대남 전단 살포 및 심리전 방송 재개 등의 조치도 예고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엄포는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뒤이어 대남 확성기가 철거되고 대북 선전매체들도 대남 전단 살포 기사를 삭제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이다. 다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 등의 정상 가동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다. 주민 결속과 대남 경고,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대남 군사행동이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과 대규모 한



〈폭파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조선중앙TV)〉

미연합훈련 재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분담도 주목된다. 즉 여동생인 김여정을 악역으로 내세워 자신을 비난한 대북전단 살포의 중대성과 지난 2년간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쌓여온 불만을 쏟아내고, 나름 성과를 이뤘다는 판단아래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서 긴장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최고지도자의 해결사 역할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참고: 관련 뉴스 보도 종합〉

## + 북한의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논란 심화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이 문제로 제기했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북 전단에 대해 정부는 엄정대처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접경지역 주민 안전 침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를 관련법 위반, 즉 불법으로 규정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항공안전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적용 가능 법률의 내용을 일일이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여정 하명'에 따른 조치라는 비판에 대해서 보수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남북대화 맥락에 기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위험구역 설정 및 전단살포 금지에 이어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설비 이동 및 사용 금지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은 여

전히 거세다. 국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수긍하는 모양새가 되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취한 다소 '수긍적인 태도'가 북한 측의 '나쁜 행동'에 도리어 보상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통해 대북 풍선 및 전단 전면 금지 대신 북한에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검열하는 걸 중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또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평화를 도모하기는커녕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하고 있다. 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주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10월 10일에는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 10여발을 쏘 일부 탄두가 우리측 지역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 풍선 등을 통해 전달된 물품이나 전단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단 살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참고: 각종 언론 보도 종합>

## + 북한 경제, 제재와 코로나로 '사상 최악'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양 시민들에게 수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일부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데일리NK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통해 지난



4월부터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 2월부터 평양시민에 대한 식량공급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어서 3월부터는 시장과 시정권기관 간부들에 대한 식량공급마저 끊겼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7일 노동당의 핵심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를 논의한 것도 평양의 경제난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산하 피치솔루션스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여파로 올해 -6%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6.5%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세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제재 이전인 2016년 26억달러에서 제재가 본격화된 2019년 2

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1~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수입 교역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타난 수입 급감은 주민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수입품은 주로 주민들의 민생과 연결된 생필품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고갈돼 외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참고: 각종 언론 보도 종합>



## + 38노스 "북중 접경 트럭 이동 증가"... 북중 교역 재개 여부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북한과 중국의 물류 흐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 6월 15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를 건너기 위해 트럭 16대가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위성사진에서 트럭 한 대가 다리로 진입하고, 추가 사진에서는 또 다른 트럭 4대가 북한 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다리에서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국경을 봉쇄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서서히 국경을 개방한다는 보고가 나왔으며, 이번 위성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38노스가 전했다.

위성사진이 한순간을 포착한 것이어서 최근 몇 주간 물자 흐름이 더욱 활발해진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실제로 양국 교역이 활발할 때는 이 지역에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국경 통과 심사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사진과 비교할 때 트럭이 증가했다는 게 38노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신의주 남부에서는 신의주와 신압록강대교를 잇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신압록강대교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한쪽에 도로 포장재를 쌓아둔 장면이 잡혔으며, 다리 입구 세관 구역으로 보이는 장소에 계속해서 흙을 운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중국이 원료를 공급해 통상 임금의 20% 수준인 북한에서 제조하고,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유지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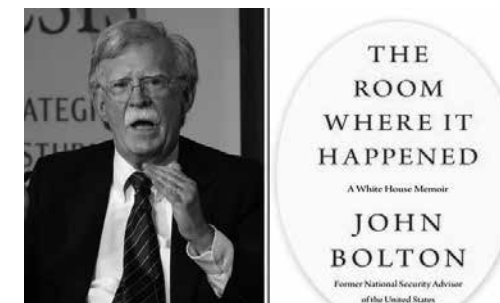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신압록강대교 양쪽 세관 지역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중조우의교의 과부하도 해소될 것이라고 38노스는 분석했다.

## + 존 볼턴 회고록 출간... 사실관계 왜곡 논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회고록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함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다분하고 워싱턴의 대표적 '매파'로서 강경파 시각에서 회고록을 집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등 큰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미 회담이나 한미 정상간 대화와 관련한 대목이 적지 않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볼턴의 회고록의 내용 중 한반도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싱가포르 회담은 한국 정부의 제의로 시작된 것이고, 하노이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판문점 회동 당시 미국 측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인 대통령이 동행을 요구해 결국 회동에 참여하도록 관철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전체적인 글의 뉘앙스는 자신이 우려했던 북미 협상 방향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잘못 나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하는 흐름이다.

볼턴의 기록에 대해 백악관과 청와대는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자신이 해임된 데 따른 앙갚음이라고 맹비난했다. 백악관은 회고록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 등 400여곳을 수정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볼턴의 기록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역시 선정적인 폭로성 언급이라며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 언론 보도 종합>

## + 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코로나 협력"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6월 2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로 18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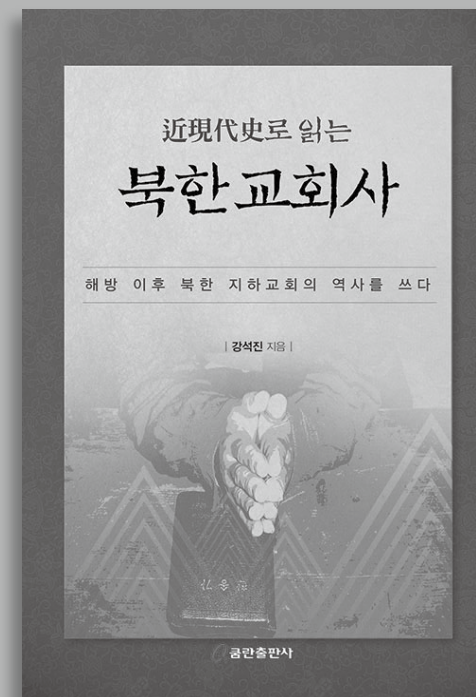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 채택에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근현대사(近現代史)로 읽는 북한교회사

저자: 강석진

출판사: 쿰란출판사

발행일: 2020년 2월 15일

가격: 22,000원

오늘 소개할 책은 북한의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책이다. 북한 교회사는 교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중요한 주제이지만 아직까지 부정확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거기에 역사라고 하면 벌써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주제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꼭 한 번 관심을 가져 볼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근현대사로 읽는 북한교회사"는 90년대 조중국경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저자가 정리한 북한교회 역사에 대한 책이다. 책의 주제가 북한교회

사인 만큼 천주교의 전래와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에서의 순교에서부터 일제시대 대부흥과 신사참배, 그리고 해방 이후 공산당과의 대립으로 인한 북한지역 교회의 어려움과 공산화 이후 극심해진 박해, 그리고 지하교회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각종 사료와 기록을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다양한 자료를 조사를 통해 역사적 맥락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려고 한 시도가 눈에 들어온다. 또한 저자의 선교사 이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역사에 대한 책이지만 선교적인 열정이 묻어나는 점도 특이한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며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지하교회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 본인의 선교활동의 기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 앞쪽에서부터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연관된 여러 사진 자료와 주고받은 편지를 소개하는가 하면, 책의 한 챕터를 지하교회 관련 사례와 증언들로 채우고 있는데 다른 일반 연구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관점에서는 감동과 은혜가 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 책이 강조하는 점이 단순한 역사 소개가 아닌 현재도 북한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더 나아가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책이라기 보다는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앞서 언급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상적인 자료, 기록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통일의 비전과 북한 지하교회의 성경적 의의 등을 담고 있다 보니 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열정과 감동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먼저 인용한 증언이나 사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용 자료 중에는 국내 기사나 잡지 코너, 서적들에 소개된 내용이나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인용되었는데 그 중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물론 공식적으로 매체를 통해 보도되거나 출간된 내용들인 만큼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좀 더 보수적으로 자료가 사용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나가는 말에서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워낙 자료가 부족한 상

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생긴 한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책에서 열정이 느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에서 저자의 생각과 주장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관점으로 쓰였다.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신앙을 부각시키거나,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연관하여 해석하기도 하고, 한반도 분단과 공산화를 신사참배로 인한 징벌적인 심판으로 해석하는 등 저자의 생각과 해석, 의미가 부여된 내용이 보인다. 신앙적으로 동감을 느끼는 독자도 있겠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서술을 지향하는 역사책을 예상한 독자라면 거리끼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독자의 입장에 따라 판단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해방 이전 한반도의 기독교가 평양을 비롯한 북한을 중심으로 부흥해왔고 한국 전쟁 이후 월남한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교회사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한 “근현대사로 읽는 북한교회사”는 역사적 내용뿐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면서 감동이 있는 책이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교회역사에 대해 더 깊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책도 더욱 다양하게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 북한 기도 제목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베이징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봉쇄도 6월 말 현재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내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북한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기독교 의료 단체와 활동가들의 인도적 활동이 가능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한 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여정의 과격한 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순식간에 경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시작된 이번 위기는 김정은의 보류 지시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점이 각 집단과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논의에 따라 혼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 대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음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소외받고 외면받았던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3.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북한의 국경통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가운데서도 라디오는 복음을 신고 지금도 북녘을 향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숨어서 라디오를 들으며 전파를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와 프로그램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오픈도 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 및 탈북 성도들이 참여하는 자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시요.

4.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인 그곳에서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신앙과 안전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박해에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삼중고를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에도 안전하게 보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피워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 내며 통일된 한국교회에 기여하고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막혀있는 국경이 열려 북한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라디오 사역을 비롯하여 북한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제 3국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강화된 통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이동은 어느정도 가능해졌지만 외국인의 방문에는 제약이 많고 비자 문제 등도 더욱 복잡해져서 선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화된 통제 속에 선교 사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사역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제3국 북한 여성들, 그리고 제 3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6.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예배와 모임의 제약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건물 중심으로 '데리고 오는' 데 집중했던 사역으로는 현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교회가 영적으로 갱신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발을 갈고 씨를 뿌리며 선교의 열정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가운데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옥(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7월 1일



월드와치리스트  
2020

##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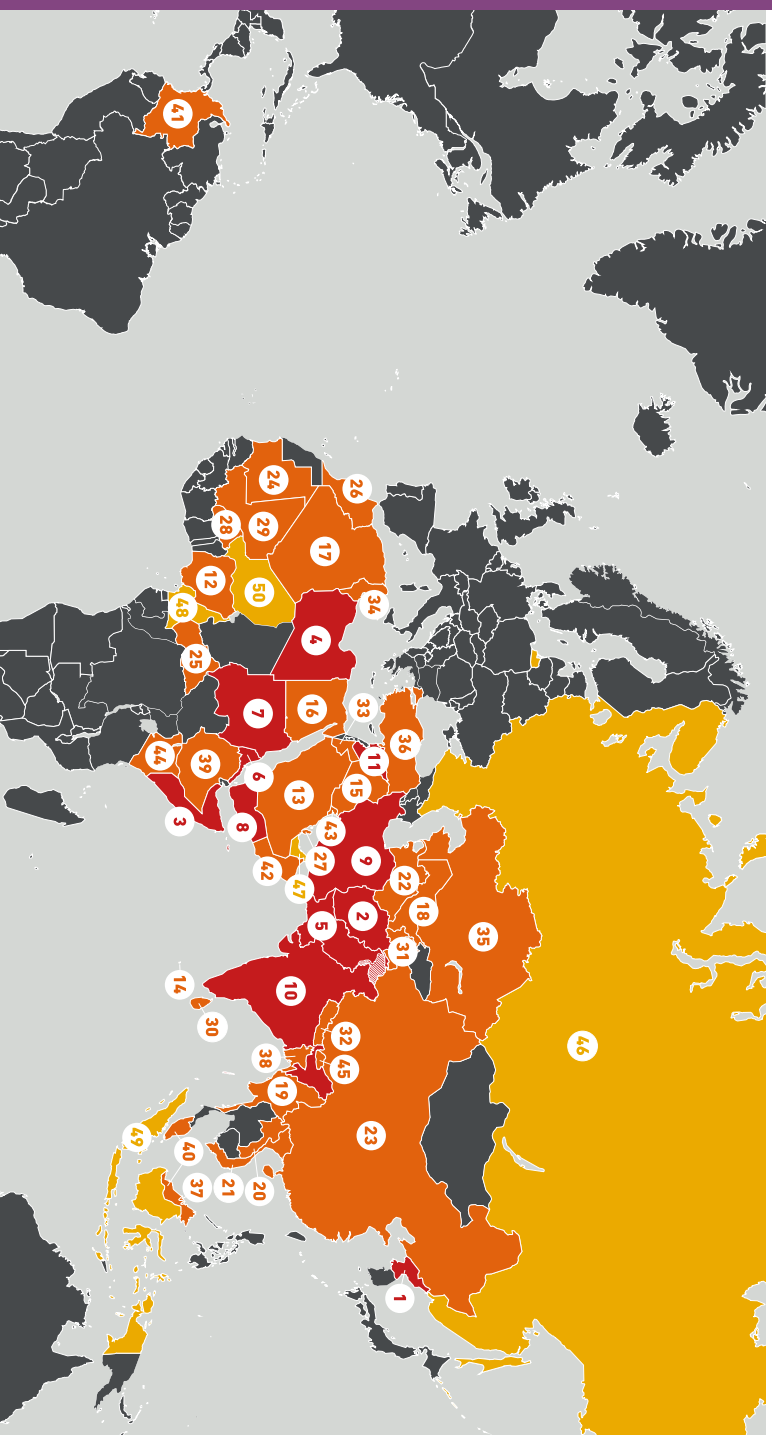
1	북한	28	모로코
2	아프가니스탄	29	카타르
3	소말리아	30	부르키나파소
4	러비아	31	말리
5	파프뉴아	32	소리랑키
6	에리트레아	33	타지키스탄
7	수단	34	니بال
8	에티	35	오르단
9	이라	36	튀니지
10	인도	37	카자흐스탄
11	시리아	38	터키
12	나이지리아	39	브루나이
13	사우디아라비아	40	방글라데시
14	콜라트	41	아르헨티나
15	이라크	42	말레이시아
16	아랍	43	팔레스타인
17	알제리	44	요만
18	우즈베키스탄	45	쿠웨이트
19	미얀마	46	케냐
20	라오스	47	리비아
21	베트남	48	라이베리아
22	투르크메니스탄	49	아랍에미리트(UAE)
23	중국	50	카메룬
24	모리타니아	51	니제르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속 1

● 극단적인 수준의 배려   ● 매우 높은 수준의 배려   ● 높은 수준의 배려

오펜도어 헬도버겐만스트는 크리스스텐 배려가 가장 심한 쪽에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보도보고'에 종합적으로 사회평가를 하고자 도입했다. 오펜도어만스텐이 1996년 국가의 정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배려가 나타나는 편에 포함되어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점수 스펙트럼의 양쪽에 자리잡았다. 이것은 북극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스텐의 의제와 관련없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평가를 얻기 때문이라고 고려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국가들이 실제로 얻고 있는 평가를 평가할 때, 오펜도어만스텐은 배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스텐의 의제와 관련없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평가를 얻기 때문이라고 고려하고 있다.

오른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검사를 받습니다. WWJ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크리스천회는 교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리메시는 스티븐카바티칼로바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거실폭탄테러범이 시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티는 말합니다.

“시간이 발전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지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찬례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시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황제를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